

# 나주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1년 여정 마무리

2월 시민 자발적 참여로 꾸려  
매주 정기연습...3차례 공연  
단원 공연·동영상 시청 해단식  
내년 2월 오디션 2기 단원 선발



지난 10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나주 시민오케스트라 단원과 강사진, 관계 공무원들이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우리들의 행복한 에필로그, 참 아름다웠습니다.”

나주시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시민 문화행복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9 나주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오케스트라 단원, 강사진,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오케스트라 해단식을 갖고 1년간의 여정을 마쳤다.

나주 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공공 문화감사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돼 진행됐다.

지난 2월 악기 연주가 가능하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오케

스트라가 꾸려졌고,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과 더불어 총 3회에 걸친 공연을 하며 감동과 환희의 메시지를 선사했다.

특히 음악을 통해 원도심과 혁신도시 주민, 공공기관 임직원 간의 상호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일상적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주시가 추구하는 문화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했다.

“우리들의 행복한 에필로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해단식은 다과회, 단원 공연

(5팀), 동영상 시청, 소감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빨강, 초록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 크리스마스 파티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단원 공연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테마로 바이올린·클라리넷·첼로 앙상블, 피아노 트리오 등 5팀이 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그 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이어서 올 한 해 시민오케스트라 활동상

을 기록한 동영상 시청, 단원 소감 발표를 통해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단원 이경은씨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지만 포기하기도 아까운 나이였는데 시민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을 접하면서 삶에 큰 기쁨이 생겼다”며 “첫 무대를 오르며 느꼈던 벅찬 감동, 정든 단원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나주시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효경 나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 가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복도시 나주의 새로운 원동력이 됐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주 연습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해준 단원들과 김동규 예술감독, 권경락 지휘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시민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과 호평에 힘입어 내년 2월 오디션을 통해 제2기 단원을 선발,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나주시 내년 국고 예산 2346억 확보

에너지신산업·생활SOC·복지 등 현안사업 탄력

나주시는 내년도 국고 예산 2346억원을 확보해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정부 예산으로 현안사업 105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207억원, 복지·농업 등 연례 반복사업 포함 총 23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이 같은 성과는 연초부터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힘 있는 발품행정이 결실이 됐다.

특히 시는 “한 톨의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든, 누구든 찾아가겠다”는 강인규 나주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공직자들이 의기투합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 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주요 현안사업들을 줄기차게 건의해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시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 내용으로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6개 지구 지정을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혁신신사업 육성 55억원 ▲EV·ESS 사용 후 배터리를 리사

이클링 산업화사업 98억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 35억원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사업 250억원 ▲소수 생산·저장 기술 개발사업 191억원 등을 확보했다.

또 복지, 문화, 보육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생활SOC’사업은 ▲이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5천만원 ▲시청 앞 시유지 주차타워 건립 12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54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0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8억원 등이다.

이밖에 경제·안전 분야는 ▲직식산업센터 건립 15억원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지원 12억원 ▲나주·C-노안농공단지 도로확포장 사업 12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54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80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8억원 등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2만 시민과의 약속인 호남의 중심도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국비를 확보해 매우 기쁘다”며 “이년에 반영된 사업은 집행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조기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 나주시 양성평등 시책

전남도 실적평가우수기관

나주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추진해 온 양성평등 시책이 값진 결과로 이어졌다.

나주시는 전남도가 올해 실시한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과 ‘성인지 정책 환류 실적’, ‘여성인권·복지 실적’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주시는 양성평등 관련 전문기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여성뿐 아니라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민 체감형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등의 교육 실시 부분도 호평을 받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남여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아동연극 '마쁘와 신기한 돌'을 관람한 유치원 원아들이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나주시, '창의력 쑥쑥' 아동 연극 '마쁘와 신기한 돌' 공연

유치원 원아 등 300명 관람

나주시는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아동연극 '마쁘와 신기한 돌'을 공연했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혁신도시 한국전력 거래소 다솔홀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연극 '마쁘와 신기한 돌'을 공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 아동의 독서 문화 콘텐츠 체험 기회와 책 읽는 습관 함양을 위

해 마련됐다.

'마쁘와 신기한 돌'은 스위스 동화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주인공 마쁘가 신기한 돌을 쫓게 되면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기후변화, 환경보호, 물질사회 부작용 등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공연은 일반 연극과 달리 마입과 무용 등 배우의 몸짓과 소리를 통해 향, 맛, 감촉 등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또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관객이 연극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열린 공연으로 아동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동렬 나주시 혁신도시교육과장은 “지역 아동들이 발달기에 매우 중요한 책 읽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함양하고, 도서관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독서와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 나주시 올 최고 뉴스는 '한전공대 유치'

나주시정 10대 뉴스 선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포함

혁신도시 시즌1 완료 등 뽑혀

나주시가 올 한해 뜨겁게 달궀던 '2019 나주시정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나주시는 기해년 마무리를 앞두고 올 한 해 주요 시정 또는 큰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2019 나주시정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가 선정한 2019 시정 10대 뉴스 중 '화동점정'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한전공대 유치였다. 한전공대는 유치 발표 후 자원 문제와 대학생 수 감소 등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반대여론이 일었으나, 지난 7월 나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또 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자율특구지정으로 혁신·일반·신도산단과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주 에너지국가산단,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 관내 6개 산단(면적 6.15km<sup>2</sup>)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포함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갔다.

특히 시는 농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 지자체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290억원을 투입해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생산농가 기획 생산기반 및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10월 조선시대 객사 중 최대 규모인 호남의 중심지 나주를 상징하는 대표 역사건축물 '금성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로 지정돼 나주목의 위상을 세웠다.

이 외에 10대 뉴스는 ▲16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시즌1' 완료 ▲공약이행분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2019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장관상 ▲전국 SNS대상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대한민국 마한문화재 관광재 20만 돌파 등 에너지신산업, 문화, 복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분포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